



한해 마무리 잘하고 새해 맞자

다 사다난했던 2004년 갑신년 한해가 저물어 간다. 지금쯤 각자 맡은 바 일자리에서 지나간 한해를 돌아켜 보면서 다가올 새해에 대한 각오를 다짐할 때이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기각과 수도이전 위헌 판결로 커다란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 재선과 중국 후진타오 체제 출범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기류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갔다.

우리 한국어항협회 역시 분주한 한해였다. 조사 연구 및 기술도서 발간 보급사업과 관련, 아름다운 어촌 100선 안내책자 발간과 어촌어항 연구논문집(제6집)을 발간하여 보급함으로써 어촌어항의 실태를 전국민에게 홍보하는데 한몫을 했다.

또한 외국과의 기술교류 강화와 관련해서는 제7회 한·일어항기술 교류회의를 개최했고, 제56회 일본전국어항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제16, 17차 해외어촌어항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교류를 했다.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제9회 어촌어항어장 사진공모전을 개최했고, 제3회 어항인대상을 시상했으며, 무엇보다 올해 가장 큰 성과사업 중 하나였던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는 우리 어촌어항의 모습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협회가 정부로부터 수입 받은 해양환경정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해양 폐기물 수매사업, 연평도 꽃게어장 정화사업, 고성군·보령시 침체어망 인양사업 등은 그 결실이 수산업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어업인에게 커다란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협회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크게 고양시킨 사업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

협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가오는 2005년에는 어항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정부로부터 새로 수입 받아 협회의 기능을 더욱 다양화시키는 동시에 협회의 재정 자립도도

지금보다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2월쯤으로 예상되는 임시 국회에서 어촌어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회 역시 명칭부터 '한국어촌어항협회'로 거듭 태어나서 어촌분야까지 협회의 업무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정리작업에도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가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닥칠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선 현재 주어진 임무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차대하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것은 우리 수산업의

국제적인 환경이 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찌면 내년부터 시행될 지도 모를 쌀 수입 개방문제에 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수산업 역시 언제 어느 때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완벽한 자기정비이다. 우리 스스로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수산업 전체의 결정적인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는 것이다.

한국어항협회가 존립하는 명분도 바로 이것이다. 한해를 착실히 마무리하는 이 마당에 내년 또는 5년, 10년 뒤 우리의 미래까지 한번 짚어보고 준비해 봄으로써 어항인, 어업인, 수산인들의 권익보호와 위상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쁨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해는 오늘도 떠오르고, 내일도 떠오를 것이지만 오늘 떠오른 해가 내일 떠오를 해와 같지는 않다. 뒤집어 말하면 모든 사물은 항상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반복 속에 끊임없는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변화의 시류에 적절히 적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래서 한해를 잘 매듭 짓는 일이 중요하다. (어촌어항소식)

